

<說苑>

「畜産」과 「獸醫」의 起源的 考察과 相互 關聯性

—東洋의 概念을 中心으로—

姜 晁 熙

1. 畜字의 뜻

辭典에 依하면 “畜”字는 “축”, “혹” 두가지로 發音 하는데, 이字를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는 뜻의 名詞 또는 “쌓을(積)”의 뜻의 形容詞로 使用할때는 “축”으로 發音하고, 기를(養), 용납할(容), 순종할(順), 머무를(留)의 뜻의 動詞로 使用할때에는 “혹”이라고 發音한다.

한편 六書尋源에 依하면 “축, ”혹” “휴” “츄”의 네가지의 發音이, 있다. 即 “축”은 屋蓄積全, 止也”라 하여 蓄, 積과 같은 意味로 “쌓다”를 뜻할때와 “머무르다”(止)의 뜻으로 使用할때, “혹”은 “屋養也 積全”이라 하여 “기르다”의 뜻으로 積字와 同意語로 使用할때, “휴”는 “宥獸可養”이라 하여 기를 수 있는 짐승의 뜻으로 使用할 때, “츄”는 “宥家養獸”라 하여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뜻으로 使用할때 各各 發音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畜”字가 지닌 여러가지 뜻 中에서 다른 것은 固捨하고, 家畜을 뜻할 때의 音은 現속의 “축”과 六書尋源中의 “츄” 사이에 相異가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따라서 “츄”와 畜는 한글맞춤법상의 問題라고 하더라도 츄에서 축으로 音이 變化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畜에 關聯된 漢字로 上記한 것 以外에 蓄(수), 蓄, 𪚩이 있다. 이들은 모두 畜字의 古字로 只今은 使用되지 않으나, 蓄字는 獸字와도 關係되고 蓄字는 畜字와 같은 뜻의 重文으로 使用되었으며 “𪚩”의 篆字는 古文에 主로 使用된 것이라 한다.

2. 畜字의 字源

畜字는 玄字와 田字가 合하여 만들어진 會意文字이다. 六書尋源에 依하면, “(說)田畜也 淮南子曰 玄田爲畜”이라 하였고, 또 (唐) 引淮南子註言 田之汙下, 黑土者可畜牧也라 하여, 밭(田)아래 水草가 豊富한 處에서 牧畜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黑土라 함은 農耕에 適合하지 않는 低濕地로서 그 色이 검은 關係로 이

것을 玄田이라고 하였다.

한편 同書按에 「說文 無田之汙下黑土云云等句此引說文云云 說矣」라 하여 唐의 淮南子註言을 否認하고 있어 確證을 할 수 없으나, 周禮 天官에 「太宰之職 以九職 任萬民(中略) 四曰 藪牧 養畜鳥獸」라 하였고, 그註에 못에 물이 없는 것을 「藪」라 하고 「牧」은 「牧田」으로서 다같이 畜牧하는 땅을 뜻한다고 하였다. 澤無水曰, 牧牧田 在遠郊 皆牧之地 이와 같이 「藪」「牧田」은 모두 지금의 「牧場」을 뜻하는 것으로 農耕에 不適當한 低濕地가 利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곳은 풀(草)이 茂成하기 쉽고, 그 色이 검은 까닭에 「玄田」이라고 한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므로 原始畜牧은 山間地帶보다도 低濕地帶가 利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關聯하여 「畜」字는 생겨난 것 이라고 하겠다.

3. 畜字와 獸字와의 關聯性과 區別

周禮天官獸醫疏(爾雅引用)에 「在野曰獸 在家曰畜」이라 하여, 집에서 기르는 짐승은 畜이요, 들에 있는 것을 獸라 한다 하였고, 爾雅畜疏에는 「畜是畜養之名 獸是毛蟲總號」라 하여 亦是 畜은 사람이 養育하는 것을 말함이요, 獸는 털 가진 짐승의 總稱이라고 하여 畜字와 獸字의 區別을 明確히 하고 있으나, 前漢尹翁歸傳에는 掌畜官 音義並與獸全이라 하여 畜은 그 音과 義가 獸와 같다고 하였고 周禮天官獸醫註에는 獸牛馬之類라 하여 소와 말을 指稱한다 하여 獸醫의 職分을 明示하고 또 그 疏에는 「對文則 畜獸異 散文則 通」이라 하였다. 따라서 畜과 獸는 概念的으로는 明確히 區別되는 것이지만, 用語에 있어서 獸는 畜字와 同意語로 使用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境遇에 獸字가 반드시 들짐승(野獸)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同條(爾雅引用)에 다시 兩足而羽謂之禽, 四足而毛謂之獸라 하여 다시 獸와 禽을 區別하고 있다. 그러나 “禽”字도 반드시 두발에 날개 달린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周禮庖人條註에 凡鳥獸未子曰禽

라고 한것을 보면 初産前의 動物을 禽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廣義의 獸는 우리 現在 通念의으로 使用하는 獸와 禽을 合한 總稱이며 이 두가지를 區分하여 狹義로 解釋할 때에는 네발에 털가진 짐승을 獸, 두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禽이라 하는 것이며 畜字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廣義와 狹義의 두가지 解釋을 붙여서 無妨할듯 하다. 即 廣義의 畜(家畜)은 닭, 소, 돼지는 勿論이나 오리 같은 禽類를 合하여 總稱하는 것이고 狹意의 畜은 네발에 털가진 것, 禽은두발에 날개가진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다.

近者에 한글 專用問題와 더불어 家畜을 집짐승, 가금을 짐새, 고쳐 使用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狹意의으로는 집짐승과 짐새는 家畜과 家禽의 漢字式概念으로 使用되고 廣義로 이 두가지를 總稱할 때에는 집짐승으로 하여야 할 것은 물론 妥當하다고 할 것이다.

4. 家畜의 東洋의 飼育目的에 關한 考察

本稿에서 筆者는 家畜의 成立課程과 定義에 對하여 成書에 紹介된 바와 같은 여러 學者들의 說을 되풀이하거나 獨斷을 내릴 生覺은 없지만 文獻을 通해서 前述한바 家畜이란 語源의 考察과 함께 東洋文明의 發祥地인 古代中國 또는 그 影響 밑에서 成長한 우리나라에서의 家畜의 成立과 概念의 歷史의인 變遷에 對하여 考察하고 筆者는 바로 이點에 對하여 若干의 考察을 加하고저 하는 것이다.

周禮地官牧人條에 牧人의 職務에 關하여 다음과 같은 文句를 볼 수 있다. 牧人은 六牲을 길러 蕃殖하고 祭祀用의 牲을 提供함을 管掌한다.(掌牧六牲而阜蕃其物以共祭祀之牧)고 하였으며 그 註에 六牲은 牛馬羊豕犬雞의 六種類를 일컬음이라 하였고 또한 그 疏에 牛人, 羊人, 犬人, 豕人等 五官이 있어서 소, 羊, 개, 돼지 같은 것을 各各 따로 길러서 그 가운데서 毛色이 純粹한 것을 擇하여 牧人에 提供하면 牧人은 이것을 蕃殖하여 充人에 넘기고, 充人은 다시 이것을 約 三個月間肥育하여 神物로 使用하는 것이다.

家畜을 이와 같이 犧牲用으로 使用하는 것은 周代에 이르러 制度化하였을뿐, 그 習慣은 人類가 일찌기 神 또는 自然物에 對한 崇拜의 觀念이 생긴 太古적부터 始作된 것임은 누구나 認定할 수 있을 것이다.

한런 周禮天官 庖人條에 庖人은 六畜(馬, 牛, 羊, 犬, 豕, 雞) 六獸(麋, 鹿, 熊, 麋, 野, 兔) 六禽(鴈, 鶩, 鷓雉, 鳩, 鶩 또는 羔豚, 犢, 雉, 鶩)의 各種 禽獸의 種類와 色을 가려서 膳夫와 內外饗에 供給하는 것을 職

務로 하고 있는 바 庖人에 이와 같은 各種 動物을 供給하는 것은 亦是 夏官 甸人 地官 甸人 牛人 春官 甸人 雞人 秋官 甸人 犬人, 冬官 甸人 豕人, 그리고 獸人, 等이다.

그 註에는 亦是 六畜은 六牲이라 하였고 「如養之曰 畜, 將用之曰 牲」春秋傳曰 卜曰 牲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畜과 “牲”을 區別한 것으로 即 家畜을 기르는 目的은 究極의으로 屠殺利用하는데 있는 것이지만 屠殺日字가 豫定되기 까지는 畜이라 하고, 日字가 確定된 것을 牲이라 한 것이다.

또한 膳夫는 王의 食飲膳羞를 管掌하는 官吏로서(膳夫, 掌王之食飲膳羞, 以養王及後世子) 註에 膳, 牲肉也, 羞, 有滋味者라하여 王家의 食用으로 할 때도 이것을 牲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庶民間에 있어서도 六畜을 비롯한 野禽獸가 食用으로 利用되어왔음은 勿論이겠지만 이 境遇에 있어서도 牲이란 字는 그대로 準用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犧牲의 참뜻은 神에 바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며, 一般食用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特別히 祭祀用은 牲性이라 하여 몸이 힘이 없고(體完具) 純色일 것이 規定되어 있을 뿐이므로 家畜養育의 動機를 이룬 것이 祭祀用과 食用 그 어느것에 重點이 두어졌는지 이것만으로서 推定하기 困難하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意味를 包含한 所謂 犧牲을 目的으로 한 것이 家畜의 다른 目的의 利用運用, 毛用, (輕用役用等)의 이르는것보다도 優先한다는 것은 字意로 보거나 慣習上으로 보거나, 거의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犧牲用과 食用과의 先後關係에 있어서 先史漁獵 수렵時代의 生活에서 獸肉의 用途가 희생 食用 두가지중 어느 便이 먼저였든가 하는 것은 그리 簡單히 結論지을 수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文獻上으로 볼 때에는 祭祀는 賓客이나 日常食生活보다 重要하였으므로 養畜의 主目的은 祭祀의 犧牲用에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現在 韓半島의 版圖는 아니지만 지금의 滿洲地方을 차지하던 古代 扶餘에서는 周보다 約 100餘年을 앞선 B C 1286年에 나라의 官職名에 六畜의 이름을 붙여 使用하고 家畜을 飼養하였으며, 名馬가 出產되었다는 記錄이 있으며 家畜을 犧牲으로하여 祭天하는 習慣이 생기고 또는 軍事가 있을때마다 소를 잡아서, 발톱의 解合으로 吉凶을 占치는 일이 있었다. 그 以前으로 올라가서 檀君說話時代에는 家畜에 關한 記事는 別로 볼 수 없고, 山海經에 依하면 君子國 在其北衣冠帶劍食獸라 하여 鳥獸肉을 食用으로 한 記事가 옛모이기

는 하나 여기서 食獸라 한 것은 田獵한 짐승을 말하는 것이라고 生覺된다.

그러나, B.C 1122年 韓氏朝鮮(이해는 周武王이即位하여 國家를 創立하던 때와 같음)에 關한 記事(海東역사卷二)에 輿馬宮室之漸 自此始라 하는 句節은 우리나라에서 이때에 輿馬가 利用되었다는 記事인지는 疑問이다.

그리고 衛滿朝鮮에 右渠이 漢帝에 말을 獻納한 일을 비롯하여 古代 部族國家時代에 있어서 말은 里下馬란 이름으로 中國에도 널리 알려져 有名하였었고, 他家畜에 있어서도 厩妻에서는 돼지를 길러 고기를 먹고, 그 기름을 몸애 발라 추위를 막는 風習이 있었으며, 三韓中에서도 馬韓에서는 소와 말을 길렀으나, 탈줄모르므로 사람의 殉葬用으로 衣用되었을 뿐이고 辯韓에서... 乘駕의으로 널리 利用되었으며, 또 濟州島 소와 돼지를 잘 기르고 그 가죽으로 衣服으로 利用하였다는 것이 三國誌를 비롯한 古文獻에 紹介되어 있다. 同時에 扶餘의 正月 祭天行事에 뒤이은 迎鼓놀이 殺人殉葬을 爲始하여 歲의 十月祭天에 이은 舞天, 馬韓의 五月, 播種과 十月秋收後의 祭天行事 그리고 前記한 牛馬殉葬등은 勿論 三國時代에 내려와서도 祭天用으로 特別히 돼지를 길러 온 것인데 (郊豕) 이러한 史實들은 家畜을 食用으로 보다는 祭祀用的 犧牲用을 目的으로 길렀다는 推測을 濃厚케 하는 것이다.

即 우리나라에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말은 衛滿朝鮮 때부터 戰爭用으로 利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北部地方一部分의 일이고 南部地方에서는 그後도 相當한 有間 穀類農業을 하여 이것을 主食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家畜이 農業에 關한 일이 없으며 또 食用으로서의 必要性이나, 習慣上으로 養畜을 한 事蹟은 別로 볼 수 없는 反面에 天地神에 對한 尊畏心으로 家畜을 犧牲으로 提供하는 風習은 일찍부터 發顯되었고, 또 이를 爲하여 郊豕 같은 것을 길러 온 것으로 보아 家畜養育의 第一義의 目的이 犧牲用에 있었는듯 한 느낌을 갖게하고 적어도 文獻上으로 이와 같은 論據를 否認할만한 資料는 없는 것이다.

5. “畜産”과 “家畜”의 定義와 概念에 對한 考察

現在 우리나라에서 畜産이란 用語는 英語의 Animal Husbandry, Live stock Husbandry, 그리고 中國의 畜牧等の 用語와 同意語로 使用되고 있다. 그러케 本人은 畜産이란 名詞이 이와 같은 뜻으로 使用되고 있음에 對하여 異議를 提起하는 것은 勿論 아니나, 이 名詞의 由來를 살펴보고 漢字的인 解釋을 試圖해 보려

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現代 畜産이란 定義에 對하여 考察하면 學者들 間에 多少 見解에 差異는 있으나, 이것을 綜合하여 보면, 畜産이란 “農業의 一部分으로서 家畜을 合理的으로 飼育生産하고 그 生産物을 사람의 厚生에 利用하는 것”이라고 要約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字意대로 他部門의 用語와 比較하면 畜産은 農産, 林産, 水産 등과 對等한 名詞로서 “家畜의 生産”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農業 林業과 對等한 位置의 名詞로서는 “畜産業”이란 말 適當할 것이다. 그러나 畜産業은 畜産學 또는 畜産界等の 말과 區別하기 爲하여 使用하는 境遇가 많고, 一般的으로는 “畜産”이란 二字로 農業, 林業 등과 對等한 名詞로 使用되고 때로는 農産, 林産 등과 같이 若干 意味가 좁게도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中國의 辭源에 依하면 “畜産”이란 語의 해석은 猶俗置人言 畜産이라 하여 사람을 辱할때 使用하는 畜生과 같은 뜻이라 하며 우리가 말하는 畜産과는 意味가 全히 다르다.

中國에서는 Animal Husbandry의 뜻으로는 畜牧 또는 牧畜等の 用語를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李朝末까지도 Animal Husbandry의 뜻으로 “畜産”이란 用語는 別로 찾아 볼 수 없으며, 亦是 中國式으로 畜牧이란 말을 使用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면 畜産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日本에서 造作使用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36年間의 日本支配下에서 常用化되게 된 것이라고 生覺된다.

이와 같이 같은 “畜産”이란 말이 現今에 있어서도 中國에서는 “畜生” 즉 “짐승”이란 뜻으로 使用되고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Animal Husbandry의 뜻으로 使用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日本支配以前에서는 中國과 같이 畜産은 짐승, Animal Husbandry는 畜牧이란 말을 써오다가 現在에는 日本式으로 그 概念이 固定常識化된 것인듯 하다.

現代에 있어서 畜産은 위의 定義에서 說明한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農業의 一部分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東洋諸國과 같이 文字 그대로 農業의 一部分으로 附屬的인 意義밖에 없는 곳도 있고, 歐美諸國과 같이 畜産이 農業의 大部分인 形態에 이르기까지 畜産이 農業分野內에서 占하는 比重은 國情과 文化發展의 程度에 따라 다르다.

畜産이 農業의 一部分이란 所以는 家畜을 飼育하기 爲해서는 飼料作物을 栽培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他部分의 農業에 있어서도 家畜이 없이는 合理的인 經營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古代에 있어서 畜牧과 農業의 關係는 어떠한가?

前記 畜字 字源項에서 若干 言及한바 있으나, 周禮 天官에 「以九職任萬民, 一曰三農, 生九穀. 二曰 園圃, 毓草木, 三曰 虞衡 作山澤之材. 四曰 藪牧 卷蕃鳥獸. 五曰 百工 筋化入材. 六曰 商賈, 阜通貨賄. 七曰 嬪婦 化治絲枲. 八曰 臣妾 聚斂疏材. 九曰 閭民, 無常職 轉移執事」라고 하였는바 이것은 藪牧(畜產)은 勿論 園圃(園藝), 虞衡(山林)까지도 三農(耕種)과 區別하고 있다.

現代에 있어서도 耕種(Agronomy)과 畜產은 區別되는 것이지만, 古代의 三農은 九穀(黍, 稷, 林, 稻, 麻, 大豆, 小豆, 大麥, 小麥)의 生産만을 意味하는 耕種農業을 뜻할 뿐 其他 部門은 이에 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의 農은 現今 “農業”(Agriculture)이란 말에 該當하는 包括的인 뜻을 가진 것이 아니며 畜產과 農業사이에 近日과 같이 緊密한 有機的關聯性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古來로 「農者 天下之大本」이라 하여 農本國임을 自處하고 있으나, 이 境遇에 있어서도 “農者”라는 것은 耕種農業을 意味하는 것이고 畜牧은 包含되어 있지 않다.

다음 前記 周禮原文에 對한 疏와 註를 參考하면 더욱 古代의 農과 畜牧에 對한 觀念이 明白해 진다. 「公彥 疏釋曰, 一曰 三農 生九穀也, 四曰 藪牧養三鳥獸者, 謂在藪牧之民事業, 使之長養蕃滋飛鳥獸而已」 注釋 曰云澤無水日藪者, 地官澤澤云. 大澤 大藪. 藪澤 別言, 叔在藪 火烈具舉 藪若有水 不得田獵. 故知澤無水日藪也. 云牧 牧田在遠郊. 知者 見載師云 牧田 賞田任遠郊之也 云皆 畜牧之地者, 謂藪牧 皆是 畜牧之地, 案載師職 鄭注 牧田畜牧之家所受田也, 非畜牧之地 此解違者. 但牧 六畜之地 無文. 鄭約與家人所受田處. 即有六畜之地, 故云在遠郊也.」

6. 獸醫術의 起原과 獸醫의 解釋

(1) 馬師皇과 伯藥東洋文明의 起原은 거의 다 中國에서 求하지 않으면 아니되나, 獸醫術에서 있어서도 그 軌는 마찬가지이다.

即 獸醫術도 中國에서 韓半島로 傳來되고 다시 日本에 이것을 傳受하게 된 것이다.

中國 文獻을 통해 볼 때는 일찍이 黃帝時代(4千數百年前)의 馬師皇을 東洋의 獸의 鼻祖로 치고 家商을 治療한 始初로 삼고 있다.

續事始에 「黃帝時有馬師皇者 善醫馬 通神明 自此馬醫始也」라 했고, 또 列仙傳에는 「釋皇師者 黃帝釋師也能醫釋馬」라 하였으며 또한 新刻針醫參補馬經大全에 帝가 馬師皇에 問脉色論에 「馬飼皇者 黃帝時 明牧之聖事也 生而聰明 長而靈通 能相馬牛之形 神診馬牛之脉息 察五臟之虛實」라 하여 馬師皇이란 사람이 馬醫術에 能通하였을 뿐만 아니라 相馬에도 神通하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伯藥 本名孫陽漢朝七雄 戰國時代의 人物法樂, 賴公, 東郡 天大汝, 王良(周代)神農氏 등 獸醫에 關係되는 人物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伯藥은 師皇의 流를 따라서 醫驅에 神通한 聖師로 前後世人들에 의하여 指稱되고 우리나라의 漢方獸醫學도 이 伯藥의 經을 基盤으로 하고 있으며 日本에서는 이것이 轉稱되어 바구로(バウロウ)라고 하여 獸醫라는 名稱이 使用될때까지는 말병(馬病)을 고치던 사람의 名稱으로 使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時代(周以前)에는 文明이 整頓 制度化되지 못하고, 또한 一定한 名稱도 없었으나, 적어도 東洋에 있어서는 獸醫術이 距今 4千수百年前부터 始作되고 그 主對象은 말과 소(牛)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動物의 家畜化過程에 있어서 말의 家畜化가 가장 늦은 것인데 治療對象으로는 가장 먼저 올랐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事實은 말이 가장 나중 家畜化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가장 重要하고 價値있는 用途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2) “獸醫”

위와 같은 時代가 約 千餘年을 지나고 周의 武王이 建國한 後 文物과 官制가 制度化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醫의 四科가 確立되고 醫師所屬下에 疾醫(內科) 瘍醫(外科) 倉獸(衛生) 등과 더불어 獸醫職이 設置되었던 것인데 人醫術이나 獸醫術의 濫觴은 文獻을 통해서 우리가 推測할 수 있는 時代보다 훨씬 古代로 올라갈 것이 常識의이다. 그러나 人類가 自身의 身體의 異常狀態를 認識하고 經驗에 의하여 그 治療法을 發見하거나 또는 迷信的으로 여러가지 手段을 講究하기 始作한 때가 正確히 어느 때인지는 漠然할 뿐이나, 그러나 이미 家畜이 있었다고 하면, 그 手段과 方法을 家畜에게도 應用하였으리라고 보아 좋을 것이다.

周대에 와서 이것이 制度化될 때 獸醫師가 다른 人醫師에 屬한 科와 더불어 同等한 位置에서 重要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推測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何如間 漢字로 獸醫란 用語는 距今 3000年前으로 올라간 周代初期에 制定된 語휘인 同時에 官職名이었고,

그 起原을 여기서 發하는 것이다.

그러면 獸醫란 職分은 그 當時에 무엇을 하는 것이 었던가. ?

即 周禮 天官에 「醫師, 衆醫之長」이라 하였고, 그 밑에 「獸醫 下士四人 註 獸牛馬類 疏 此職云 主治牛馬 未必治其野獸」라 하여 獸라 함은 牛馬를 指摘하는 것이요, 野獸를 治療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卷五의 獸醫條에는 「獸醫 掌病獸病獸 疏 此醫 唯療家畜 不療野獸, 獸畜義通 今以畜解獸 故當獸連言之也」라 하여 위와 같은 解釋은 하고 畜을 獸로 同意로 解釋하는 것은 畜獸가 하나로 連結되어 하나의 어휘로 使用되고 있기 때문인 것 뿐이다. 그러므로 獸醫의 “獸”字는 家畜을 意味하는 것이지 家畜以外的 動物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獸醫는 家畜의 疾病을 治療하는 것이 그의 本分이라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다.

現今 獸醫의 職能은 相當히 範圍가 넓어져서 家畜의 衛生外에 公衆衛生分野에 關係하고 또한 家畜(狹意의 家畜)以外的 動物의 治療도 必要할 때에는 當然히 할 일이겠지만 獸醫의 本外의 使命은 家畜의 治療에 있고 獸字가 家畜以外的 動物을 包含하는 것이 아니라는 解釋은 只수도 正當하다.

이와 같이 東洋에 있어서는 獸醫術은 醫術의 一分科로서 根原을 發하고, 牛馬를 비롯한 所謂六畜의 治療를 그 對象으로 하였으며, 獸醫는 大概 畜牧하는 사람에 關係가 없는 純粹한 醫員으로서 治療에만 從事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東洋에서의 獸醫의 歷史는 오랜 것이지만 特히 이分野에서 再來 數千年間 科學的인 進歩가 極히느려 成果가 불탄한 것이 없었고, 現代醫學의 基盤은 멀리 紀元前 2300年前 希臘의 Hippocrates가 닦아 羅馬로 傳해진 것이지만 그 以前의 原始時代에도 病은 神 또는 惡魔가 주는 것이라는 生覺에서 이에 對한 治療方式이 일찌기 埃及希臘 헤브라이에서 起原하고 있는 것이다.

獸醫術에 對한 記錄도 이미 埃及의 末期에 있었다고 하며 古代에 있어서는 裝蹄師 또는 屠夫들이 家畜의 治療를 한 것이며 特別히 獸醫라는 것은 없었다.

其後 獸疫의 猖獗로 가끔 莫大한 被害를 입게 되고, 人智가 發達됨에 따라 獸醫라는 것이 생기고 獸醫學에 關한 正式教育機關이 設立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約 300年前 1762년 佛蘭西 Lyons의 獸醫學校를 矯失로 하여 1791년 英國에도 設立되었다. 그러나 獸醫教育이 普遍化되어 名國에 널리 퍼져가는 19世紀에 들어와서 의 일이다.

西洋獸醫學이나 東洋獸醫術이 다 같이 太初에는 半

迷信的인 方法에서 또 約 3000年前이던 겨 놓고 있으나, 近은 눈부시게 發展한 것이다.

周禮 天官 獸醫條과 같다.

「凡療獸病 灌而行畜獸, 必觀行之者 氣也. 氣謂氣脈 既行之病, 凡療獸瘍 灌而融 註 亦先放之 而後養之.

即 家畜의 疾病을 內科에 分하고, 內科에 있어서는 그 病狀을 診察하기가 어려우므로 于先 毒을 먹이거나, 灌腸하여 一旦 病勢를 緩和하고 然後에 診脈하여 疾病의 發生部位, 程度를 觀察하고 治療하며 外科의 腫瘍等은 手術을 加하여 病原을 除去한 後에 藥物로 治療하는 方式으로서 當時로서는 相히 科學的이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7. 現代畜産과 獸醫의 關係

前述한 바와 같이 古代에 있어서는 農業과 畜産이 有機的인 關聯을 맺고 있지 않았던 關係로 農이란 概念에는 畜産은 包含되지 않았던 것이며, 獸醫는 또한 純全히 醫術의 一分科로서 存在하고, 있었던 까닭에 農業과는 勿論 畜産과도 오늘과 같은 有機的 觀念은 稀薄하였던 것이다. 即 家畜을 기르는 사람과 治療하는 사람은 全然 別個의 人物이고 家畜의 治療는 人醫術上의 經驗을 應用할 수 있거나 또는 裝蹄師와 같이 獸醫術에 關聯된 職業으로 經驗을 통해서 얻은 知識과 技術을 가진 사람들에 依하여 實施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農業 Agriculture, Farming은 經營面으로 볼때에는 畜産이 大部分 또는 部分的으로 不可分하고 有權的으로 짜여 들어간 큰 덩어리를 意味하는 것이며 一般通念으로는 各要素를 統合한 綜合的인 名稱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畜産이 農業에 包含된다는 것은 이제 다시 贅言을 要치 않는다. 그러면 畜産과 獸醫 乃至는 畜産學과 獸醫學의 關係는 어떠한가?

前述한 바와 같이 좁은 意味로서 畜産은 家畜의 生産과 利用面을 다루는 것이고, 獸醫는 家畜의 衛生을 擔當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表示하면, 前者는 家畜의 積極的인 面을 다루는 것이요, 後者는 그의 消極的인 面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 같이 吾人의

厚生에 利用을 目的으로 한 家畜을 爲한 業務이며, 畜産과 獸醫는 表裏一體의 關係에 있는 것이다.

獸醫 乃至는 獸醫學의 根源이 醫學의 一分科로서 發하고, 現在에 있어서도 그 學問의 性質이나, 獸醫의 業務가 사람아닌 家畜을 相對로 한다는 뿐이지, 外의 原理 術에 있어서 醫師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한便으로 그이 相對 家畜을 中心으로 生覺할 때에는 畜産은 家畜을 기르는 것이고, 獸醫는 그 疾病의 豫防治療하는 것이라면, 醫學은 耕種農業에 對한 病理昆虫農業等的 關聯性과 對等한 位置에서 畜産學에 關係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植物의 病理 昆虫 農業等이 微生物이나 導理化學을 基礎로 하고 있으나, 그것이 農作物을 爲한 것이기 때문에 農學의 分野에 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獸醫學도 畜産의 一分野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現代의 “獸醫”라는 것은 畜産과의 關係에 있어서 免許를 갖고 營業의 診療行爲를 하는 것이 다른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는 診療와 畜産이 전혀 關聯性이 없는

別個의 것이란 것은 아니다.

即 獸醫는 그인 相對 家畜에 對하여 即 畜産 基本의 으로 잘 알아야 하겠고 畜産이 家畜의 衛生에 (獸醫學) 對한 知識 없이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明白하다.

【參考文獻】

周禮
爾雅
六書尋源
三國志東夷傳
農業의 起源
辭源
韓國史 李丙壽
Principles of Veterinary science Hadley
元亨療馬集
〈筆者=서울農業大學教授〉

—(65頁에서 계속)—

나라의 經濟事情과 畜産業을 참작해서 우선 一年間으로 하되 그 內容은 體驗을 얻게하는 畜産學을 1/4 거의 모든 獸畜學分野의 基礎가 되는 化學과 物理學을 2/4 그리고 一般生物學과 統計學等을 爲始한 그밖의 敎養科目을 1/4로 하는 것이다. 오늘의 醫學은 그것이 人醫學이건 齒醫學이건 또는 獸醫學이건간에 高等學校 過程만을 履修한 學生에게는 依授되기 어렵게 發展되어 있기 때문이요 또 醫學敎育은 그 正規過程만도 最少 4年을 所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基礎敎育이 解決되면 現在絶對不足한 正規課目的 敎授를 強化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獸醫臨床敎育에 革新이 있어야 한다. 醫學은 하나의 高度로 發達된 應用學問임에 終局的으로는 모든 기초醫學分野가 臨床敎育에 直結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敎育內容의 改編은 臨床을 爲한 基礎의 強化이고 基礎學科는 臨床을 爲해 存在한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臨床敎育에는 다른 어떤 分野보다 더 힘이 傾注되어야 한다. 이르기 爲해서는 現存 家畜病院의 設立 適地選擇 및 經濟的인 後援이 있어야 한다. 이중 移動臨床施設은 實한 敎育材料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특히 必要한 것이다.

다섯째 獸醫敎育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旣成獸醫師의 訓練이다. 왜냐하면 醫學은 날이거듭 될수록 發展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 問題는 우리의 경우 거의 等閑視되어 있거나 또는 그 訓練自體가 극히 消極적이기 때문이요 우리 韓國獸醫界에는 옛날에 敎育을 받은 農業學校 및 檢定試驗出身獸醫師의 수가 많고 또 이들은 現在 우리 獸醫界의 中堅들이기 때문이다. 이 旣成獸醫師의 訓練은 農村 및 都市의 開業獸醫師와 各機關獸醫師의 國內訓練을 爲始해서 能力있는 獸醫에게는 高次的인 海外視察과 研究에 까지 波及되어야 하는 週期的이고 엄격한 國內訓練은 大學敎授와 有能한 研究所의 職員이 맡아 서로 有機的으로 結合해 完遂되어야 한다. 또한 이 訓練은 보다 專門的으로 檢討되어 被訓練者의 能力과 專門分野에 알맞도록 施行되어야 한다. 끝으로 앞에 적힌 몇몇 提言이 政策樹立에 反映 그리고 實現되어 韓國獸醫學徒와 獸醫界에 勇氣와 發展이 깃들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本文의 一部는 農大新聞에 게재한바 있음을 밝혀 둡니다.

〈筆者=서울大獸醫學科 副敎授・獸醫學博士〉